

안전사고 없는 3無 축제 만든다

무주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분야별 점검 등 안전 확보 주력

축제장 조성 등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준비가 한창인 무주군이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에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열고 그간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심의, 분야별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준비가 한창인 무주군이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에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열고 그간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심의, 분야별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에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무주경찰서와 무주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를 비롯한 관련 부서 등이 함께 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사고 예방 대책, 교통 대책 등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눴다.

는 축제"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바가지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무(無)로 전국의 축제를 변화시킨 선두 주자다운 면모를 기대해서도 좋겠다"라며 "안전사고 발생을 막고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계획 숙지와 실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

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등나 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9일간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남대천 생명+(치어방류 & 소원지 날리기)'를 비롯한 체험 판매, '부남 배소배물이 굿놀이'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반디빛의 향연(무주 안성낙화놀이 & 드론쇼 & 불꽃 & 레이저쇼)' 등 야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RED FOOD 페스티벌' 성공 개최 만전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장수군은 지난 20일 강경덕 부군수 주재로 'RED FOOD 페스티벌(제1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소관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서는 지난 축제의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각 프로그램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율해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강경덕 부군수는 "RED FOOD 페스티벌의 네이밍으로 개최되는 첫 해인 만

클 타 축제와 차별성을 둔 장수군 축제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지난축제 개최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RED FOOD 페스티벌은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레드푸드를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및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고원시장상인회와 간담회 가져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0일 진안고원시장상인회 월례 회의에 참석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하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호수 진안고원시장상인회장은 "군수님의 이번 방문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한 군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상인회와 군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고원시장장은 2019년에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장육형태에서 마트, 백화점식 시장으로 탈바꿈했으며 59개소의 점포와 10개소의 청년몰을 운영 중이다.



관광, 농업 도시인 베트남 끈뚝성 대표단이 21일 진안군을 방문했다.

베트남 끈뚝성 대표단, 진안 방문

인삼재배지·진안홍삼연구소 등 방문... 우호 협력 관계 다져

진안군은 21일 관광, 농업 도시인 베트남 끈뚝성 대표단이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 진안군과 베트남 끈뚝성이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응우옌 후 탐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무원 및 기업관계자 총 12명이 20일~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끈뚝성 관계자들은 인삼재배지, 진안홍삼연구소, 홍삼가공시설 등을 견학하며 진안홍삼산업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홍삼한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인삼의 재배부터 가공, 연구, 유통, 판매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베트남의 응옥린 인삼과의 접목 방안과 경험에 대한 알찬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그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끈뚝성 대표단은 진안군에 상호 대표단 교류 확대와 인삼 및 약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리 경험에 대한 공유를 건의하기도 했다.

진안군은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 특구로 청정 자연에서 재배한 인삼과 인삼을 활용한 홍삼제품 판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끈뚝성도 응옥린 인삼을 재배하며 의약품, 화장품,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과 끈뚝성은 인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만큼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무주군이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에 주력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딧불농업대학 스마트강소농과에서 22일과 29일 2회에 걸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2일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무주군을 유혜란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교육생(39명)들과 캘리그래피 기본 익히기를 비롯한 실습, 농산물 소포장 방법(상품구성, 포장재의 기본원리, 상품 포장 디자인 실습 교육)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런 교육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김완식 과장은 "소비 패턴의 변화로 농산물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케팅 영역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영역에서 시도해 보는 노력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반딧불농업대학 스마트강소농과를 비롯한 사과와 복분자과 등 3개 과에서는 현재 122명이 수강 중으로 오는 11월 22일까지 학과별로 17~21회에 걸친 현장 컨설팅과 체험학습, 현장 견학 등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시작된 무주반딧불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과수와 축산, 농업관광 등 31개 과정에서 1,805명의 졸업생과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관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